

(Robert Vannoy) , 대선지서, 10강

이사야 28-30 장

복습

우리는 지난 주 시간이 끝날 무렵 이사야서의 새로운 부분인 28장부터 35장까지 시작했습니다. 저는 28장부터 35장이 여러 면에서 임마누엘서인 7장부터 12장과 평행을 이루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 시작한 28장의 배경은 그 땅의 지도자들, 즉 그 땅의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연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첫 번째 구절에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왕국 에브라임 - 특히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는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의 면류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이 우박 폭풍, 즉 엄청난 물의 홍수로 인해 파괴될 것입니다. 이는 앗시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7절에 내려오면 이사야는 말의 초점을 북쪽에서 자기 앞에 앉은 백성에게로 바꾸며 이렇게 말합니다. - 그들은 목상에 오류가 있고 재판할 때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사야 28:8-13 귀족들은 이사야를 조롱합니다 -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 외국어가 그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28장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을 듣게 됩니다 - 이 지도자들이 실제로 반응했거나 적어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 - 그것은 9절과 그 다음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그는 누구를 이해하게 만들 것인가? 젖을 떼고 젖을 떼는 이들을 위해? 왜냐하면 교훈은 교훈 위에, 교훈 위에 교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제가 10절에서 언급했듯이 히브리어에서는 소리의 가치에 따라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저장 레사브*, *카브 lekav*, 거의 어린이나 아기의 웅얼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이사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유치한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까?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그러자 이사야는 “다른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너희가 여호와와의 분명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이상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고 대답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외국 침략자. 그리고 13절에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lekav*, *sav lesav* -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말했다고 비난했던 횡설수설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난 세션이 끝날 때 멈춘 곳입니다. 그것은 13절을 통해 우리를 불러옵니다.

이사야 284-22 - 예루살렘 귀족과 앓수르 동맹에 대한 연설

나는 14절부터 22절까지가 내가 지금까지 제안해 온 배경이 실제로 이 장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꽤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4절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보라, 이 연설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이니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곧 이 땅의 지도자들 곧 귀족들에게 하는 것이니라. 임마누엘서 7장부터 1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것은 왕이었고, 아하스였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 땅의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충성된 자들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당신께서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 과도 언약을 맺었느니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 아래 숨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귀족들의 생각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과 동의하고 있으며 내 생각에 그것은 그들이 앓시리아(불경건한 국가 앓시리아)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보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시리아인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 아래 자신을 숨겼습니다 .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기초석[메시아] 그러나

16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16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은 유일한 보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초석에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의 뜻만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안전이다.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 즉 믿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마련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조항인 이사야 7장부터 11장까지의 동일한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가려진 메시아적 언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가려진 메시아적 언급입니다.

귀하가 인용한 20페이지,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JA 알렉산더의 주석 아래 페이지 중간, 첫 번째 문단은 그의 주석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학생: “어떤 페이지를 또요?” 454. 인용문의 20페이지에 있지만 여러분이 주목하실 첫 번째 문단은 454페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페이지 번호는 이 인용문의 출처에서 빠졌습니다. 참고문헌 항목 아래에 있지만 불행히도 각 문단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단은 Alexander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망상을 신뢰합니다. 도리어 나는 견고한 기초를 놓으니 남이 닦아 줄 수 없느니라. 이 기초는 성전(Ewald)도, 울법(Umbreit)도, 시온 자체(Hitzig)도, 히스기야(Gesenius)도 아니고,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메시아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 로마서 9장 3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 곧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라 함과 같으니라.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6: “그러므로 성경에도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라.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그리스도를 분명히 언급하는

문맥에서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얼마나 이해했습니까? 나도 확신할 수 없고,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언급을 명시적으로 발견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원칙은 진리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안전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서둘러라” 또는 “부끄러워하라” (참조, 로마서 9:33)

“서두르다”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남성 단수입니다. 이는 실제로 “서두르다” 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NIV가 말했듯이: “믿는 자는 결코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번역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알다시피, “결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칠십인역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 33 절이 인용한 방식입니다 -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 그렇다면 질문은 “서두르는 것” 에서 어떻게 “부끄러워” 합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런 의미에서일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의 실행이 지체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와 실행이 지연될지라도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부끄러워하라”는 신자의 소망이 실망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희망은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개념들 사이에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조점은 다소 다릅니다. 아마도 [the] NIV는 70인역 번역의 영향을 받았으며 신약 인용문은 그런 의미에서 “서둘러라”라는 개념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게세니우스(Gesenius)는 아랍어 어근에 기초한 히브리어 동사가 “서두르다”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다”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향이겠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랍어에 그 단어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17 강물이 은신처를 넘치게 함

17절: “내가 줄에 공의를, 다림줄에 공의를 두리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고 물이 숨은 곳에 넘치리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주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 믿고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그들의 도움과 보호를 구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사야가 재림의

도래를 다시 비교하는 이 구절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앗시리아인들은 그 땅을 범람시킬 큰 강으로 향했습니다. 물이 은신처에 넘쳐흐를 것이다. 그것은 이사야가 말한 8장 7절과 8절과 비슷합니다. 앗수르 왕이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강을 넘어 올라와서 그 독에 넘치며 유다를 통과하여 흘러 넘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기에서도 같은 종류의 제안을 보십시오. 물론 우박은 사마리아를 멸망시켜 심판이 임하고 그 숨은 곳에 넘치게 될 것이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28:18-20 죽음과의 언약=앗시리아, 인간의 안전 확보 불가능

18절: “그리고 너희의 죽음과의 언약” - 너희가 앗수르 사람들과 맺은 이 계약 - “너희의 죽음과 맺은 언약은 폐하리라. 넘치는 재앙이 유행하고 너희가 그것에게 짓밟힐 때에는 스올과의 너희의 언약이 서지 못하리라.” 아시리아 사람들이 유다와 북쪽 왕국을 침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련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19절과 20절: “그것이 나갈 때부터 그것이 너희를 덮치리니 이는 아침마다 아침마다 낮과 밤에 지나갈 것임이니라. 보고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침대는 사람이 몸을 눕힐 수 있을 만큼 짧고, 덮개는 사람이 몸을 둘 수 있을 만큼 좁기

때문입니다.” NIV에는 “침대가 너무 짧아서 몸을 쪽 뺄 수 없고, 담요가 너무 좁아서 몸을 감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자원 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 New Bible Commentary는 20절에 대해 말합니다. 20절은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이것은 비참하게 실패하는 자원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비참하게 실패하는 자원에 대한 마지막 말. 너무 짧은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거나, 추워서 이불을 덮을 수 없어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앗수르와의 협정이 입증될 것입니다.

몸을 감싸기에는 너무 좁은 담요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봄방학인 지난 주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 Mark입니다. 해군 학생입니다. 그는 지난 주에 시에라 네바다를 탐험하러 들어갔고, 눈신을 신은 채 해발 7~8,000피트의 요세미티 계곡에서 하이킹을 했습니다. 5피트와 6피트의 눈.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매일 밤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 그가 입었던 모든 옷, 그리고 좋은 침낭인 침낭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런 느낌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텐트를 치고 아침에 약 3피트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온이 당신을 녹여버릴 것

같아요. 눈 속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그것이 20절이었습니다.

이사야 28:21-22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리라 . 그가 진노하시되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그의 일, 그의 이상한 일을 행하시고 그의 일, 그의 이상한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손이 강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음을 들었노라.” “지구” 는 히브리어 에레 츠(*eretz*) 로 아마도 “땅, 나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세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1장과 22장... 21 장에는 다윗 치하의 블레셋 사람들의 학살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리라 ” 역대상 14장 11절과 16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블레셋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에 대한 여호수아의 승리 - “그가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리라.” 그것은 여호수아 10 장에 있습니다. 그곳은 태양이 멈추기를 바라는 여호수아의 기도와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20 절 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주목하십시오 . 그는 기브온 골짜기에서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일, 그의 이상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블레셋 사람에게도, 가나안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이상한 일입니다. 그의 심판은 그의 백성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비웃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벌이 더 중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음이니라.”

내 생각에는 NIV 22절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에 대하여 선포된 멸망에 대하여 내게 보이셨느니라.”

이사야 28:23-29 하나님은 농부처럼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23-2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비유적인 언어로 된 별도의 단위이며 이것이 앞부분의 내용과 정확히 어떻게 일치하는지 분류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장. 몇 가지 제안을 하겠지만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NIV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주의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보세요. 농부가 파종하려고 쟁기질할 때 계속해서 쟁기질합니까? 그는 부서지나요? 계속해서 토양을 부수고 괴롭히나요? 표면을 고르게 한 후에 캐러웨이를 뿌리고

근채를 뿌리지 않느냐 ? 그 자리에 밀을 심고, 그 밭에 보리를 심고, 그 밭에 철자를 심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하나님은 그에게 교훈을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캐러웨이는 썰매로 타작하지 않으며 커민 위에 수레바퀴를 굴리지도 않습니다 . 캐러웨이는 막대로 두들겨 맞고, 커민은 막대기로 두들깁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타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타작 수레의 바퀴를 그 위로 몰아도 그의 말은 타작하는 수레를 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났고 모략이 기묘하며 지혜가 광대하도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부분인 23절과 26절에서 하나님은 무작정 일을 하시는 일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는 여기서 농부가 일을 하는 방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일꾼이 아니십니다. 그는 신중하게 계획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작업 중인 자료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합니다. 그는 신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업하는 자료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쟁기질하는 사람은 영원히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파종하려고 쟁기질할 때 계속해서 쟁기질합니까? 아니요, 그는 영원히 쟁기질하지 않습니다. 그는 쟁기질을 마친 후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현재 단계를 마치시면 다음 단계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 그는 영원히 쟁기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심을 것이다. 그는 영원히 심지 않을 것이지만, 또한 적절한 때에 수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과 농부가 농사일의 다양한 단계를 처리하는 방식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하셨지만, 그들이 불신과 불순종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27절에서 29절, 특히 27절과 28절에 이르면 농부는 다양한 유형의 농산물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캐러웨이는 썰매로 타작하지 않으며 수레바퀴로 커민을 치지도 않습니다 . 캐러웨이는 막대로 두드리고, 커민은 막대기로 두드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농부는 다양한 종류의 생산물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사람들과 계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볼 때, 그 점에서 분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은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벌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징벌을 주실 것이지만 최후의 멸망은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 그 이상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게 그 비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단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단계를 거쳐 자신의 백성을 다른 시기와 다른 방식으로 다루실 것이며 이 시점에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에서 좀 더 벗어나면, 27-28절의 그림에서 보이는 원리는 농부가 다양한 종류의 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당신은 앗시리아에 관한 진술을 가졌습니다. 숲이 잘려서 다시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식인 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렵다, 이 구간.

이사야 29:1 아리엘

자, 29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살던 성 아리엘아 너희는 화 있을진저 아리엘아” 로 시작됩니다. 그 아리엘은 분명히 시온 즉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살던 성 아리엘아, 너희는 화 있을진저.” 문제는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 어원인 *ariel*, lion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Ariel의 의미가 “난로” 또는 “벽난로”임을 암시하는 아랍어 어근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신의 난로나 벽난로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만, 이는 아랍어 비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읽어보면 “아리엘아, 다윗이 살던 성 아리엘아 너희는 화 있을진저. 추가하다 해마다; 축제의 순환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아리엘을 포위할 것이다. 그가 애통하고 애곡할 것이요 내게는 제단 화덕과 같으리라” NIV에는 “제단 난로”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리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엘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거나 완전히 파괴될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면에 진을 치고 너희를 치리라” 고 했습니다. 내가 망대들로 너를 에워싸고 너를 대적하여 포위 공격을 가할 것이다. 낮아지시면 당신은 땅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먼지 속에서 증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네 목소리가 유령처럼 땅에서 나올 것이다. 네 말은 먼지 속에서 속삭일 것이다.” 그래서 처음 네 구절에서는 포위 공격을 받고 땅에 무너지고 심판을 받고 통받는 도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5-8절에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 다섯째부터 여덟째 까지는 “너희 대적은 티끌 같겠고 무자비한 무리는 겨 같으리다. 홀연히 홀연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임하실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재물 이 그 성채를 치고 그를 에워싸는 것은 꿈과 같고 밤에 나타난 환상과 같을 것이니 주린 자가 꿈에 먹다가 꿈을 꾸고 먹되 그는 깨어나고 배고픔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꿈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깨어나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시온 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도 그러하리라.” 따라서 5절에서 8절에서는 비록 유다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지라도 - 그리고 여기서는 여전히 앗수르 침략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열국과 모든 나라의 무리에 대한 복수형임에도 불구하고... 문맥상 우리는 여전히 유다를 향한 앗수르의 진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유다를 치려는

앗수르의 진군에 가담했음을 나타내는 일부 언급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공격에 무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홀연히 여호와께서 임하시리라” 고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너희 대적은 티끌 같겠고 포악한 무리는 겨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7절과 8절에 이르면 앗수르 왕에게는 마치 배고픈 사람이 자다가 맛있는 음식을 꿈꾸다가 깨어보니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앗수르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유다를 갖고 있고,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사야서에서 읽을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히스기야 시대에 앗수르인들이 강제로 철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이사야 37장에서 그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산헤립이 유다를 치러 왔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강제로 후퇴했습니다.

이사야 29:9-12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좋아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놀라워하고 놀라라. 너희는 눈 멀고 눈멀어라. 취하되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비틀거리되 맥주를 마시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너희 눈을

봉하셨느니라(선지자들) 그는 당신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선견자).
 당신에게는 이 모든 환상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말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두루마리를 주고 '이 책을 읽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는 읽을 수 없습니다. 봉인됐어.'
 또는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두루마리를 주고 '이것을 읽어 보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9-12
 - 내가 보기엔 당신이 가진 것은 이렇습니다. 땅의 지도자들, 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 그들은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28장 7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들도 포도주와 독한 술로 인해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9절에서 그는 추가적으로 그들이 취했지만 포도주에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놀라워하고 놀라라. 눈멀고 눈멀어라. 취하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비틀거리지만 맥주 때문은 아니다.”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책이 있고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하기를 거부합니다. 내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읽을 수는 있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두루마리를 주고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봉인됐다.' 그리고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이것을 읽어 보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변명을 합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봉인을 뜯어 읽지 않아도 된다. 읽을 수 없는 사람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서 읽어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취했지만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돌아섰고 여호와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12절 끝까지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사야 29:13-24 이스라엘이 앗수르와 음모를 꾸미고, 그들은 자기들이 토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24절: 매우 흥미롭고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나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장기적인 조감도, 즉 현재 상황인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훨씬 넘어서는 미래에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읽어보고 그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셋: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에 대한 그들의 숭배는 사람이 가르친 규례들로만

이루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 번 경이로움에 경이로움을
 더해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없어지리라.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고 깊은
 바다로 내려가며 흑암 중에 자기 일을 행하며 생각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느냐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가 알겠는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과 같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당신은 상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니라
 말하겠느냐? 향아리가 토기장이를 가리켜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고 기름진 땅이 숲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는 귀머거리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어두움과 어둠 속에서 소경의 눈이 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궁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포악한 자는 사라지고 거만한 자는 사라지고 악을 보는
 자는 다 끊어지리라 그들은 말로 사람을 죄인으로 삼으며 변호인을
 법정에 걸리게 하고 거짓 증언으로 무죄한 자를 빼앗는 자니라 정당성.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에 이르시되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손으로 만든

그들의 자녀를 볼 때에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리라. 그들은 야곱의 거룩하신 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마음이 제멋대로인 사람은 이해를 얻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 에서 보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킹 제임스 성경 14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이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러나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는 멸망하리로다.” NIV에는 “나는 경이로움에 경이로움을 더해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자의 총명이 없어지리라.” 14절입니다.

나는 15절이 악한 세력과의 동맹을 통해 땅을 구원하려는 당면한 상황에서 이 계획을 다시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은 “그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고 깊은 데로 내려가며 흑암 중에 자기 일을 행하며 생각하기를 누가 보느냐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누가 알겠소?’” *우리는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런 협약을*

맺을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것입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졌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진흙이요 여호와와는 토기장이이신 것이 아니라 마치 토기장이인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상황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토기장은 진흙과 같아서 지은 자가 어찌 자기를 만드신 자에게 말하겠느냐? 그들은 진흙이요 여호와가 아니라 토기장이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뒤바꾸는 이 대역전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토기장이요 그들이 진흙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9:17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아닌] 비옥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7절에 있는 비유적인 내용인 이 전체 구절의 핵심 진술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17번은 -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하십시오. 17절은 “곧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삼림처럼 보이지 아니하겠느냐” 고 말합니다. 이제 내 생각에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름진 밭, 열매 맺는 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가꾸신 포도원이었습니다 . 그는 자신의 보살핌과 사랑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포도원에 관해서는 그것을 보존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는 레바논의 숲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14절의 놀라운 일, 즉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할 것이며 기름진 땅이 삼림처럼 존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17절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처럼 대우받고, 이전에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으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29:18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8절에서 더욱 발전됩니다 - 적어도 당신이 그 비유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저는 수치와 그 수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관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수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다른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 날에는 귀머거리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 어둡고 어두운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입니다.” 앞부분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거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온갖 변명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18절에서 여러분은 귀머거리들이 이제 듣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 날에는 귀먹은 이들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소경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침침함과 어둠 속에서 소경의 눈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자리를 얻게 되리라.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그림이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 그림과 같은 종류의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에는 가지 중 일부가 꺾이고 그 자리에 야생 가지들이 접붙여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 이사야 7장에서 발견한 내용 사이에 어느 정도 유사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리아-에브라임의 일과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은 아하스를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합당하지 못한 왕 아하스를 대신하여 다윗의 보좌를 합당한 왕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그리고 여기 29장에서 그는 이 땅의 악한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그들의 무관심, 그들의 변명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말씀하십니다 .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 밖에 있어야 합니다 . 그 날에는*

귀머거리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어둠과 어둠 속에서 소경의 눈이 볼 것입니다.

이사야 29:19-22

22절 -글쎄-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되돌아갈 수도 있지만 19: “다시 한 번 겸손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궁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포악한 자는 없어지고 거만한 자는 없어지고 악을 바라보는 자는 다 끊어지리라 그들은 말로 사람을 죄인으로 삼으며 변호인을 법정에서 걸리게 하고 거짓 증언으로 무죄한 자를 무죄케 하는 자들이니라 .”

이사야 29:22-23 그리고 나면 22-23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르시되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들이 자기 자녀 중에서 내 손으로 한 일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리라. 그들은 야곱의 거룩하신 분의 거룩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녀들의 상태로 인해 비참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을 볼 것입니다. 보라,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가 손으로 만든 작품인 그들의 자녀를 볼 때 .” 야곱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그의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육신으로 볼 때 반드시 야곱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의 추가로 참 이스라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읽어 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집에 대하여 이르시되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자기 자식 중에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내 이름을 지키리라 기록한; 그들은 야곱의 기록하신 분의 기록함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사야 29:24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

24절 - 결론 - 아마도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심령이 부패한 사람은 이해를 얻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교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고 버림받은 지혜로운 자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잘못되었거나 영이 타락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감람나무 비유를 사용하여 잠시 꺾였던 원 가지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빛나간 사람은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지시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14절부터, 13절부터, 13절부터 끝까지, 당신은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조감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돌이켜 궁극적으로 유대인 자신을 그 감람나무 안으로 다시 데려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 열쇠는 17절입니다. 이 전체 구절의 중심에 있는 그 인물로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고 기름진 땅이 숲과 같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나머지 구절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사야 29:19-21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악의 영향력이 약화됨

19절과 21절은 어렵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세계 열방으로 전파되면서 악한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 - 근절이 아니라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9절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것이요, 사람 중에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복음의 체험.

이사야 29:20-21

20, 21절: 포악한 자가 없어졌고, 오만한 자가 멸망하였고, 죄악을 감시하는 자가 다 끊어졌으며, 말로 사람을 속죄하게 하는 자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울무로 치고 물러가라. 아무것도 아닌 것. 완전히 부당한 그런 행동, 즉 복음이 사람의 삶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약화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글썄요, 다시 한 번 아시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17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J Barton Payne은 17절을 상당히 다르게 취급하고, 다른 절도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리아 상황의 맥락에 넣습니다. 페인 “조금 있으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그는 레바논이 약한 수준으로 전략하는 상징으로 본다. 그는 기름진 밭을 약함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레바논은 약해진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스라엘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풍요로운 밭은 숲처럼 보일 것이며, 숲은 권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 제 생각에는 그들이 당신의 인용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페인 밑에서. 17절 - 이것이 이 장의 내용입니다 - 29:17. “조금 있으면 레바논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할 것이요 그 아름다운 밭이 삼림 같으리로다 ” 라고 이사야서 10장 34 절의 빛으로 설명하는 레바논은 다시 대 앗수르 제국의 모형으로 보였다.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는 반면, 이스라엘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23페이지 상단: 거기에 일련의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살펴본 이 부분인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가 보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헤립의 진격에 대한 예언과 이 멸망이 가져올 동시대의 결과에 관한 후속적인 멸망에 대한 예언 사이에 산재해 있는 주요 일련의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옹호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자식을 볼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야곱이 자기 자식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헤립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온유한 자들은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더하라” 그리고 다음 단락인 20-21

절에는 “거만한 자와 죄악을 지켜보고 의인을 물리 치는 자는 다 그치느니라” 라고 덧붙여 있는데, 이는 건전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역사적 기록에 대한 귀중한 보충 자료입니다. 즉, 폐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앗수르로부터 구원하실 때, 그것이 이사야 29장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는 그것이 열왕기하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은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어야 하는 문제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30:22 “너희는 네 새긴 은상을 다 더럽히며 부정한 것을 버리라.” 더욱 긍정적으로 29장 24절은 심령이 그릇된 자가 깨달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 33장 14절에서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이사야는 이미 15절과 16절에서 대답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니라 그러나 이사야 29장 18절은 귀머거리가 책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즉, 신성한 회복이 참된 빛을 가져온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모습은 앓수르가 약해짐을 상징하고, 기름진 밭이 숲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 이스라엘이 힘을 얻었고 그 결과가 18절부터 24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비유적 해석으로 돌아갑니다. 매우 어렵다. 응.

주요 해석 문제: “열매가 많은 밭” , 약함의 상징 또는 하나님의 경작 이 비전은 나중에 이사야 자신의 생애에 성취되었습니까? 글썄요, 더 먼 미래가 아니라 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위해 수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예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문제는 결실을 맺는 현장 아이디어가 의미하는 바에 더 가깝습니다. 나에게 이사야의 생각의 맥락에서 열매 맺는 밭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결실이 많은 분야. 아니, 포도원은 그가 돌보고 가꾸고 맹세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레바논이 열매 맺는 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기름진 밭 *이었지만* 너희는 숲이 될 것이다 . 당신은 한동안 내가 직접 관여하고 일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사야는 힘과 약함의 상징을 사용합니다. 열매가 많은 밭을 약점으로, 숲을 힘으로 사용합니다. 글썄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 모든 것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것은 28장에서 17절을 어떻게 취하든 32장에서 15절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같은 이미지로 돌아옵니다. 32장에서는 “때까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발이 되며 아름다운 발이 삼림이 되리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오순절인 것 같습니다 - 성령이 오심 -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은 이러한 반전을 얻게 됩니다 -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속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Payne은 여전히 그것을 아시리아인들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2:15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2:15와 29:17의 수치는 같습니다.

Chelsea Revell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편집자: 칼리 가이먼(Carly Geiman)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